

전남도, 공무원 노사문화 전국 최우수

대통령상(1위) 수상...2013년·2015년 이어 3번째

공무원 노조 동반자 인식 '전남형 노사문화' 정착 평가

전남도가 2019년 공무원 노사문화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상(1위)을 수상했다.

공무원 노사문화 시상식은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 전국 전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우수기관을 발굴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노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서면심사, 현지심사, 사례발표, 3차례 심사를 거쳐 대상을 결정했다. 전남도가 전국 최우수기관에 뽑힌 것은 2013년, 2015년에 이어 세 번째다.

전남도는 공무원노조를 도정의 한 축으로서 도정 발전과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한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고, 도정 현안사업 성공 추진

과 도민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전남형 노사문화를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남도 노사는 노사협의회와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전국 최초로 노사 청렴실천 협약을 맺었다.

또 노사가 함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봉급 끝전 모아 사랑나눔 행복상자 만들기 △아름다운 기부 행사 및 이웃사랑 섬김 전달 △명절 복지시설 위문 △지역아동센터 긴급구호 지원 등을 추진했다.

즐거움 직장 만들기 운동으로 도지사가 참여하는 △간식을 부탁해 △점심소통 △수다다방 등 소

통프로그램으로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에도 앞장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사회·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전남만의 특화된 노사 협력사업을 추진한 점이 인정받았다"며 "직인 행복이 도민 행복의 첫걸음이란 생각으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규 전남도청노조위원장도 "노동조합을 도정 발전의 파트너로 존중해주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적극 지원해준 김영록 도지사와 200여 조합원들의 열성적 참여와 지지의 결과"라고 밝혔다.

허성은 기자

동구, 마을공동체 한마당·우리마을 자랑대회 개최

광주 동구가 19일 동구문화센터 4층 체육관에서 '다시, 마을이다'를 주제로 '2019년 동구마을공동체 한마당 및 우리마을 자랑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50개 마을공동체 4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전년보다 다채로운 내용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동체문화 조성의 모범적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우리마을 자랑대회'가 개최된다. 1차로 서류심사를 통과한 6개 마을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행사 당일 청중평가단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4개 공동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동체에는 시상금도 주어진다.

서구, 지역 자활방재단 하반기 간담회 개최

광주 서구와 서구 지역자활방재단(단장 조광환)은 16일 겨울철 대설 등 민관협력에 필요한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활방재단 각 동대표 및 모범 단원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겨울철 활동내용과 2020년도 활동계획 및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재단원들은 고성 산불 지원활동 등 방재단 활동에 대한 보람을 나타내면서도 낮은 인지도 등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앞으로 방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구, 정부 재원 등 126억원 조달 "지역발전 모드"

17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2019년 한해 정부 및 광주시를 통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 교부금의 규모는 각각 64억4,800만원과 61억 8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및 광주시를 상대로 활발한 재원 확보 노력을 펼쳐 거둬들인 127억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을 확보한 것이다.

특별교부세의 경우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진원 운동장 및 양림동 청년창업소 건립을 위해 각각 5억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국가 정책사업 일환으로 건의한 효덕IC 인근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사업 등 총 23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북구, 내일 마을 공감 페스티벌 개최

광주 북구가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북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에서 마을활동가,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 마을 공감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마을사업을 추진했던 총 6개 마을공동체가 모두 참여해 소통과 화합 및 마을의 미래 모습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으며 상상북구마을미래학교 수료식을 시작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사례 공유, 토크콘서트, 화합 한마당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광산구, 휴먼서비스 네트워크 성과보고회 개최

17일 광주 광산구가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에서 휴먼서비스 네트워크 운영 결과와 성과를 공유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

복지·보건·의료·교육·주거 등 11개 분야 145개 기관이 참여하는 광산구 휴먼서비스 네트워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의 신속한 위기 탈출을 위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이번 보고회에서 70여명의 사업 관계자들은, 올해 현장 활동을 기록한 7번째 사례집 <드림(Do dream)>을 공유하고,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크리스마스마켓' 행사 열린다

광주·전남중기청, 오는 24일 아시아문화전당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문환)이 주최하고 아시아 문화전당, 광주신용보증재단, 전남대학교 등 지역 유관기관과 학교 등이 참여하는 '가치샵시다, 크리스마스마켓 in 광주' 행사가 오는 24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플라자브릿지(구름다리)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은 소상공인의 가치를 사고, 소상공인이 같이 잘 사는 나라 "가치샵시다"의 문화를 확산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여 모두가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자 기획했다.

행사가 진행되는 5시간 내내 화사한 조명 아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이벤트들도 준비되어 있어 추억 또한 선사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방중기청 김문환 청장은 "가족, 친구, 연인 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치샵시다, 크리스마스마켓"을 방문하여, 풍성한 선물도 받아가시고,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하여 같이(가치) 함께 잘 사는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이용섭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 '李心'은 없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에 '이심(李心)'은 없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5일 까지는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되어야 하는데 광주는 아직 선출방식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갈

이 말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2020년 시비 지원 261억)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장 겸 현 체육회장으로서 당부한다"며 "무엇보다 광주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능한 분이 다수 체육인의 뜻에 따라 체육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봉우 기자



광주시가 17일 광주 서구 공연마루에서 추가모집한 안전보안관 120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 안전보안관 120명 추가 모집

3시간 소양교육 진행...행안부서 보안관증 발급

광주시는 17일 안전보안관 1기 120명을 추가 모집해 광주공연마루에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안전보안관의 임무와 역할', '안전신문고 웹 활용법과 신고요령' 등 기본 3시간 소양교육으로 진행했다. 기본 교육을 마치면 행정안전부가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한다.

안전보안관은 자치구별로 지역 여건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이 있는 통·반장, 재난·안전분야 민간단체 회원들로 구성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안전분야의 각종 불법 행위와 생활 속 안전문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운영 중이다.

1기 안전보안관은 5개 자치구

에서 226명으로 구성된 7대 안전문제 관행 근절에 따른 불법 행위 안전점검과 안전신문고 신고 3398건, 캠페인 78회 등의 활동을 벌였다.

올해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활용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인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경미 안전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안전위반 행위를 찾아 신고하고 지역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신고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안전보안관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1.1배

240,833원

1.7배

125,531원

2.1배

79,147원

2.7배

48,103원

5.3배

26,697원

← 5분위 고소득층 1분위 저소득층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